

GREEN

Collection

Recycling

Material

Umbrella

지구를 고치는 업사이클링 우산

UPCYCLING UMBRELLA

8REEN

에이트린

지구를 고치는 업사이클링 우산 제작 및 ESG 캠페인 기업

환경부 인증 '친환경 우산' 환경표지 보유

친환경 우산 관련 특허 보유

GD(우수산업디자인) 인증 획득

KCL 품질·안정성 인증 시험 통과

(INFO)

(주) 에이트린 | 정우재 | 2023년 7월 설립

(ADDRESS)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KU기술혁신관 608호

(CONTACT)

010-4298-2023

contact@8reen.com

(BUSINESS)

친환경 우산 제작 및 판매 | 우산 만들기 체험 | ESG캠페인



8REEN Upcycling Umbrella

에이트린 업사이클 우산



전 소재 재생 플라스틱

부품 수 83% ↓, 내구성 향상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용이한 조립형 구조



국내 최초 환경표지·FSC 인증

테이프 없는 친환경 포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를 생각하는 우산



1개당 1Kg 탄소 절감 효과

우산 1개 사용 시 1kg의 탄소를 절감하여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SPECIFIC

사이즈		130cm x 90cm	특징		조립식 구조
무게		약 480g	패키지		FSC 인증 재생 종이
소재		재생 플라스틱 (recycled plastic)			

MATERIAL



CERTIFICATION



환경표지 인증



FSC 인증 마크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에이트린의 기술과 인프라



새활용 우산 생산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ESG 캠페인**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여정을 함께 합니다.

지식재산권 15개 보유

우산 구조, 소재, 조립 방식 등
독자 기술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권 보유

15 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지속적인 소재 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한
전달 연구 조직 운영



환경표지 인증 획득

국내 최초 환경표지 인증 우산으로
친환경과 신뢰성 입증



납품 업체 목록

납품 업체



트웰브 - 신세계백화점



한국환경공단



안산시

ESG 캠페인을 완성하는 One-Stop 실행 인프라

에이트린은 자체 생산 인프라와 전문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병 수거부터 원료화, 사출, 생산, ESG 캠페인 운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1

수거

수거된 페플라스틱을
안전하게 회수



02

원료화

수거된 공병을 선별·세척 후
플레이크 (재생원료)로 가공



03

사출

재생 원료를 활용하여
우산 부품을 사출 성형



04

생산

조립, 검수, 포장 과정을 거쳐
고품질 우산으로 완성



05

ESG 캠페인 확산

완성된 우산을 통해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산

캠페인 사례 1

이천시청과 에이트린이 협력하여 폐우산 문제해결과
자원순환 인식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링 캠페인



시민 · 시청 · 에이트린 협력 구조

Preferred subpage



시민

공유 우산 제공



플라스틱 반납



시청

재활용 우산 제작



플라스틱 반납



에이트린

성과 및 효과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 참여 인원

1,640 kg

| 탄소 절감량

8,814 kg

| 소나무 식재량

1,335 그루

| 우산 수량

8,200 개

캠페인 사례 1



캠페인 사례 2

병뚜껑을 수거해 업사이클 우산을 만들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임직원 참여형 환경·사회공헌 캠페인



운영 방식

Preferred subpage



병뚜껑 수거



에이트린 수거



업사이클 우산 제작



취약계층 전달

성과 및 효과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 참여 인원

약 600명

| 수거량

51,822 개
(약 400kg)

| 환경 효과

소나무 60그루 식재 효과
(=탄소배출 약 400kg 저감)

캠페인 사례 3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병뚜껑을 수거하고, 이를 업사이클링해 우산 부품으로 제작한 뒤 만들기 체험과 봉사활동으로 연계한 자원순환 캠페인



운영 방식

Preferred subpage



병뚜껑 수거



업사이클 우산 제작



임직원 대상
우산 만들기 체험



봉사 시간 부여

성과 및 효과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총 무게	탄소 절감량	소나무 식재량	우산 수량
6 kg	32 kg	4.9 그루	30 개

언론 홍보 및 ESG 브랜딩

국내 최초 친환경 우산 캠페인과 ESG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지속가능경영 실천 사례를 확산하고, ESG 선도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01

우산 전 부품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한다면?

에이트린이 국내 우산 업계 최초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에이트린 우산이 자원순환성 향상과 유해물질 저감 효과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이트린은 복합소재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우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구조가 아닌 재생 가능한 친환경 우산을 개발했다. 제품 수명이 끝난 후에도 다시 자원으로 순환되며 자체 분석 결과 우산 1개당 약 770g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에이트린에 따르면, 이는 연간 4000 만개 이상 버려지는 우산의 환경 문제를 개선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처 : 뉴스핑크

02

분리수거·수리가 간편한 ‘지속가능 우산’

에이트린(대표 정우재)은 '지속가능한 우산'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우산은 매년 4,000만 개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쉽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트린은 재활용이 쉬운 우산을 만들었다.

에이트린 우산은 모든 부품을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 고장이 나면 원단만 분리수거하면 된다. 또한 부품 수도 80%나 줄여 조립과 수리가 간편하다.



출처 : 한국일보

03

한 번 쓰고 버리던 우산, ‘환경표지’ 달고 돌아왔다

국내 친환경 브랜드 에이트린이 개발한 업사이클링 우산이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운산 제품으로는 국내 첫 사례다.

환경표지는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에 부여된다.



출처 : 더리포트

8REEN

지구를 고치는 업사이클링 우산으로
친환경 소비를 제안합니다

CEO | 정우재

Tel | 010-4298-2023

E-mail | ceo@8reen.com

www.8reen.com